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⑫ 자비로 미움을 녹여 준 은혜

배다른 자식

K씨는 어릴 때 전기도 없는 산골에서 자랐다. 막내아들인 K씨는 훗날 자라다 중학교 입학할 앞두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위의 형들과 누나와는 달리 자기만 아버지가 바람피워 '낳아 온 자식'이었다. 가족들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K씨는 그날로 집을 나갔다. 수치심과 원망으로 차가 뿔뿔했다. 죽어버릴까 생각하며 밥도 못 먹고 지쳐 풀아떨어진 어느 날,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자신을 형들이나 누나와 다르게 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남의 아들인데 내가 밋지도 않았나. 원망은 안 되었나? 어머니 마음이 너무나 궁금해졌다. 밤중에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놀라지도 않고 "너는 꼭 돌아올 줄 알았 다. 이야기 좀 하자"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지은 인연

어머니는 "그래, 너는 다른 여자 아들이다. 그래도 난 너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악연을 미워하지 말고 가르쳐 주셨고 난 그 말씀을 절대로 믿는다"고 했다. 농사 일 틈틈이 어머니가 근처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게 떠올랐다.

처음 아버지가 갓난아이를 데려왔을 때는 사실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남의 자식을 미워하면 그 마음이 업이 되어 내 자식에게 돌아온다'는 부처님 말씀이 무서웠다고 한다. 글을 몰랐기 때문에 평생 예불시간에 남들이 읽는 경을 듣다가 거의 외우게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경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스님의 법문도 열심히 들었다. 인과응보, 내가 만들지 않은 인연은 일어나지 않는다. 원한은

나는 너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남의 자식 미워하면 그 업 내 자식에게

좋은 인연은 부드럽게 타오르는 불 같아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어머니는 속살할 때면 '다 내 인연이다' 하고 마음을 다스렸다고 한다. 그렇게 K씨를 키우다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들면서 친아들과 다름없이 느껴졌다. 형들과 누나에게도 "남을 미워하면 네가 잘 못된다"하고 엄하게 하면서 절대 차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자라면서 아무 차이를 못 느꼈던 것이다. 그 날부터 K씨는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게 되었다. 도대체 부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

니가 만일 자신을 차별하거나 미워했다면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어찌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나쁜 인연은 절기가 삼줄 같다. 그러나 좋은 인연은 부드럽기가 고요히 타오르는 불과 같다. 삼줄은 불을 묶을 수가 없으나, 불은 삼줄을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대로 어머니는 K씨와의 악연을 자비와 사랑으로 태워 완전히 바꾸어 준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래 어머니를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나 궁금했다. 저녁이면 가끔 어머니는 K씨를 방으로 불렀다. 자신은 글을 모르니 경전을 읽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 덕분에 중학교 때부터 깊은 뜻을 몰라도 많은 경전들을 읽게 되었다. 고등학교 갈 무렵 어머니는 "솔직히 너희 형제 중에 내가 제일 똑똑하다. 너는 대학을 가서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형편에 등록금 마련이 어려우니 네가 알아서 해 봐"라고 했다. 뜻밖이었다. 오지산 골에서 대학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형들과 누나도 고교만 졸업하고는 돈 벌기 바쁘게 막내인 내가, 그것도 친아들도 아닌데,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막혀왔다. 그 때부터 K씨는 이를 악물고 공부하면서 닦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 마침내 어렵게 지방대학에 들어가던 날 멋진 한을 풀듯 실컷 울었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감사하라고만 하였다.

K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정말 친 어머니 이상의 슬픔으로 울었고 지금도 가슴 속에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남아있다.

악연은 좋은 인연으로

"사회의 누가 훌륭하다고 해도 저의 양어머니 같은 분은 아직 못 보았어요. 글도 못 쓰시는 산골 보살이셨지만 부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지키셨으니까요." K씨는 어머니가 만일 자신을 차별하거나 미워했다면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어찌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나쁜 인연은 절기가 삼줄 같다. 그러나 좋은 인연은 부드럽기가 고요히 타오르는 불과 같다. 삼줄은 불을 묶을 수가 없으나, 불은 삼줄을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대로 어머니는 K씨와의 악연을 자비와 사랑으로 태워 완전히 바꾸어 준 것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조명철 경기도 안양시

매일처럼 반복되는 새벽이지만 오늘은 제게 깨어있는 것만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귀한 길을 하여 주시는 스님들을 모시고 정기법회를 열 수 있는 까닭입니다.

스님들은 "자신의 내일이 궁금해지면 지금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되고, 또 과거전생이 알고 싶다면 지금 자신이 선 자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착한 씨앗을 심으면 착한 열매가 되고, 또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과보가 된다고, 심은 대로 거두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듣다보면 그 말씀으로 인해 거울에 비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오칙 답장에 가려진 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자리, 그것이 오늘을 사는 저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이 회한으로 얼어붙고 있는지, 세월이 쌓이듯 마냥 높아져만 가는 하얀 담장이 제게 체념의 삶을 알게 합니다.

어느덧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도 흰 머리칼이 언뜻언뜻 보이는 불혹의 세월. 그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에 고개가 절로 발굽을 향하여 집니다.

그렇게 죄송한 마음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못한 아들에게 늙은 어머니께서는 "명철아!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가 싫은 것이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하시며 부처님 안에서 참회하도록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죄업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당신들의 잘못이라 하시며, 당신들께서도 늙고 병든 육신이 나마 때가 되어지면 세상에 기증키로 하셨다며, 그렇게라도 자식이 지은 업을 나누어 지시겠다는 부모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그렇게 저의 아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새 부처님의 그윽하신 미소와 마주하며 지내온 세월이 벌써 삼년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크신 사랑은 온 생명을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불날 담장 구석의 이름 모를 풀꽃에 달린 작은 씨는 하나까지도 빠뜨림이 없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어린이의 마음이 되어 알게 됩니다. 이제는 육신이 머무는 자리가 아닌 제가 바르게 설 수 있는 마음자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은 한밤중인 도반들의 단잠을 깨울까, 새벽을 열며 참선하는 도반의 청정함을 깨

뜨릴까, 조심조심 차가운 물로 머리를 맑히고 가만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새 아침을 마주합니다.

월명(月明)의 자리는 모락산 향하여진 창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월명은 제 법명입니다. 앓을 때는 이른 시간기에 어둠만이 먹물을 뿌려놓은 듯 하지만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노라면 언제 푸른 하늘이 열리었는지 모락산 기슭의 나무들이 담장 안을 굽어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오랜 예부터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을 것을 이제야 제가 마주하며 미소 짓게 됩니다. 햇빛이 반짝이며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까르르하고 웃는 모습인 듯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잔잔한 행복이 번져오는 이 아침에 다시금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새겨봅니다. 바른 법을 구하고자 절벽에서 한걸음 더 내딛는 설산동자의 마음을 닮고자 합니다. 마주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함으로 오직 선함만을 지키고자 합니다. 향나무가 저를 상하게 하는 도기날에조차도 향내음을 묻한다는 말씀은 바라밀의 참뜻을 생각해 합니다.

부처님! 한 마음 돌이키니 저 두터운 담장마저도 그릇된 습을 경계해주는 감사함이 됩니다. 언젠가 부모님 곁으로 돌아 가면 꼭 효도하겠다고 수심,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이제는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는 말과 행동이 부모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호흡한다면 이미 부모님과 함께 하는 삶임을 아는 까닭입니다.

부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이웃에게 행복의 미소가 되어지는 저이고자 서원합니다. 오늘 제가 내딛는 한 걸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귀한 인연을 베풀어주시는 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치우침이 없는 자리에서 보이는 세상을 제게 인도해 주신 스님과 법사님들, 보살행을 배움에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삶의 행복을 가르치시려 자매의 연을 맺어주시고 해결감으로 찾아주시는 귀하신 그 뜻이 이제 제 삶에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크신 그 뜻을 받들며 머무는 자리에서 부딪치는 모든 인연에 불법을 전하는 정토행자가 되고자 서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더불어 함께 수행하는 모든 님들이 그대로 모두가 성불하시길 두 손 모아 합장발원 올립니다. (끝)



그림: 문병성

한마음 돌이켜보면 '담장'도 감사

모든 인연에 불법 전하는 삶 발원

신 행 계 니 판

사찰생태연구소 어린이생태문화교실

사찰생태연구소 어린이생태문화교실이 4월 28일 '경기의 소금강 소요산 봄꽃과 봄 숲 이야기'를 진행한다. 오전 9시 의정부역내 지하철1호선 매표소 앞에서 집합해 소요산의 봄꽃과 봄 숲, 자재암 사찰체험 등을 진행한다. 자재암에서 이루어지는 사찰체험은 발우공양, 다도체험, 참선체험 등이다. 초등학생 4~6학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당사에 신청서 무리가 없는 어린이가 동참할 수 있다. 당사비는 2만원, 준비물은 식수, 필기도구, 개인용 돗자리, 개인컵 등이다. (02)745-5813

현덕사 대웅전 삼존불 점안식

강릉 현덕사는 4월 28일 대웅전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한다. 올해 초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로 선정된 현덕사는 묘사처도 신축했다. (034)661-5878

관음사 108성지순례단

부산 관음사는 4월 30일까지 3년간 108 사찰을 참배할 108성지순례단을 모집한다. 매일 둘째 주 금요일 오전 7시에 출발하며 첫 순례지는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로 시작한다. 108성지순례의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활용될 계획이다. 108성지순례를 도울 자원요원으로 모집한다. (051)294-9300

모심선원 삼천배 정진

서울 모심선원은 5월 12일 오전 10시~오후 8시 삼천배 정진을 한다. 매달 첫째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능엄주 기도들, 매달 셋째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아비라기도를 실시한다. (02)523-8005

구룡사 가족법회

구룡사가 매주 일요일 진행하는 가족법회, 4월 29일에는 각성 스님을 법사로 가족법회가 열린다. 오전 10시 만불보전에서 운가죽이 함께 모여 큰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가족간의 화목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다. (02)575-7766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영물조각 · 육불조형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7474-5349

아름다운 연꽃을 분양합니다

우리나라 연꽃 백연, 홍연, 자원연과 흰색 어리연과, 한대연꽃 수련과 온대 연꽃 등을 저렴한 가격에 특별 분양하오니 많은 이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대연꽃과 가시연꽃등 희귀연꽃은 6월부터 분양하고, 연꽃을 키우는 방법과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덕왕사에서 특별히 제조한 백연차와 3분용 연국수를 같이 판매합니다. (심는 적기는 6월달 이전에 하시면 좋습니다.) 연꽃관람은 6.7.8.9월달에 덕왕사에 오시면 약 200가지 이상 연꽃을 볼수가 있으나 많이 관람하여 주시고 단체관람시에는 사전에 예약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포기 미만 주문시에는 택배비용을 부담하여 주시고, 100포기 이상 주문시에는 특별히 현장까지 배달하여 드리고 심고 키우는 방법을 지도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꽃 피는절 덕왕사 * 분 양 문 의 *
덕인행 총무님 054)854-3855 / H · P 010-4814-9095

•온라인 계좌번호 : 농협 70107-51-019061 / 우체국 703439-02-214685(예금주 : 유재하)
•연락처 :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455-5번지
청계산 덕왕사 주지 풍운 용각 합장